1300년 전 日나라시대 대형 탑터 발견

코키(行基)대사 묘탑 추정
전례 없는 규모로 화제

나가오카인 북쪽으로 추정
중앙 15개 기둥과 원형유적
인근 코키대사 입적지 있어



나라시대의 고승 코키 대사의 묘탑지로 추정되는 탑터. 사진출처=산케이 신문

박영빈 객원기자

일본 나라(奈良)시의 중심에서 거대한 불교 유적지가 발굴됐다. 노사나대불로 유명한 토다이지(東大寺)에서 정동방향으로 6Km가량 떨어진 주택지에서 발견된 유적은 회랑과 담으로 둘러쌓인 원형의 거대한 목탑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5월 20일 일본 '산케이 신문' '이자뉴스' 등 언론들은 전례없는 발견을 일제 보도했다.

나라시 서쪽 스가와라(菅原) 유적 인근서 발견된 이번 유적은, 나라시대 고승 교키(行基) 대사와 그 제자들이 건립한 것으로 알려진 사찰 49개소 중 '나가오카인(長岡院)' 북쪽으로 추정된다.

유적 발굴을 담당한 나라 간고지문화재연구소는 "유적은 남북으로 34.6m, 동서 36.4m의 정방형으로 회랑과 담이 전각들을 둘러싼 형태"라고 밝혔다. 여기에 더해 연구소는 "유적 북측에 불당으로 추정되는 유구가 있다. 중앙에는 15개 기둥이 둥글게 배치됐다. 유구는 직경 14.5m 규모로 불탑 유적으로 추정된다"라고 전했다.

발굴조사를 담당한 사토 아세이 사가현립대 고고학교수는 "원형유적이 나라시대 최초로 세워진 형태"라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나라시대 유적 중 회랑 가운데 원형건물이 있는 유적은 호류지(法隆寺) 유메도노(夢殿)뿐이다. 유메도노는 팔각형 건물이지만 이번에 발견된 사례는 완전한 원형유적이다.

유적에서 발견된 유물과 기와는 8세기 중반 것으로 판명됐다. 조사팀은 "불교시설에,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인물은 교키 대사 뿐"이라고 전했다.

유적검토에 나선 타테노 카즈미 나라여대 교수도 "원형 유구는 사상 최초로 매우 귀한 사례"라며 "이정도의 규모를 생각했을 때 교키 대사의 묘탑(廟塔)으로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키 대사(668~749)는 백제도래인 후손으로 전염병 유행과 빈곤에 시달리던 나라시대에, 제자들과 함께 포교활동 일환으로 사찰과 다리, 저수지 등을 정비하는 사업을 진행해 백성들에게 큰 영향력을 미쳤다.

교키 대사는 토다이지 대불 조성 당시 쇼무(聖武)천황에게 화주 소임으로 발탁돼 전국을 돌며 교화행과 함께 조성기금을 보시 받았다. 그러나 세납 80세의 나이에 대불이 완성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입적했다.

교키 대사 입적 후 각지에서 대사를 기리는 전각과 불탑이 건립됐다. 입적지가 이번 발굴지와 가까운 스가하라지(菅原寺)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입적 직후 세워진 묘탑일 가능성이 높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번 발굴에 대해 사가와 신이치 오사카대학 교수는 "해당지가 토다이지와 당시 도성인 헤이죠쿄(平城京) 불과 6km 떨어져 있다는 점에서 대규모로 묘탑이 조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사상 최초로 발견된 나라시태 원형 유구에 대해선 현재 다보탑 형태의 목탑이 있었을 것이라는 추정도 나오고 있다. 일부 학자들은 "고대 인도의 복발형 스투파의 형태를 본 따 나무 울타리를 두르고 흙무덤의 형태로 조성한 토탑이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한다.

사찰 법당서 캡슐 뽑기 인기

日시코쿠 안라쿠지
장난감 캡슐판매기 설치

12신장 마스크 · 곡옥 등
사찰 기념상품도 판매해



안라쿠지 본당에 설치된 캡슐장난감 판매기. 사진출처=토쿠시마 신문

12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일본의 시코쿠 88개소 순례에 새로운 재미가 생겼다. 시코쿠 순례 6번 사찰인 안라쿠지(安楽寺)의 본당에 작은 장난감 판매기가 설치, 불교를 모티브로 한 소형 상품과 기념품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지난 5월 22일 일본의 '토쿠시마 신문'은 안라쿠지의 새로운 시도를 소개했다.

안라쿠지는 1200년 전 시코쿠 순례길을 개창한 코보대사(弘法大師)가 솟아나는 온천을 보고 약사여래를 봉안하여 개산한 도량이다.

지역에서는 '온천 약사'로 친근하게 불리고 있다. 이러한 안라쿠지의 본당 안에 최근 6대의 캡슐 장난감 판매기(통칭 캡슐뽑기)가 설치됐다. 엄숙한 정적이 흐르는 본당 안에 달그락 거리며 상품이 나오는 모습이 순례자들과 지역 주민들에게 신선하다는 호평을 받고 있다.

1회에 100엔에서 500엔 동전을 이용해 판매기에서 뽑을 수 있는 캡슐 안에 담겨 판매되는 상품은 모두 6종이다.

본존인 약사여래를 호위한다고 알려진 12신장이 프린트된 마스크, 아크릴제의 피규어, 경내의 온천수로 가피한 목제 곡옥(曲玉), 순례자 캐릭터 인형 등으로 모든 상품은 안라쿠지에서만 취급하는 한정품이다.

캡슐 장난감 판매를 생각해 낸 것은 부주지인 하타케다 유부 스님이다. 유부 스님은 "캡슐 장난감 판매기는 일본에선 어디서나 흔하게 볼 수 있는 판매기다. 적은 돈으로 다양한 상품을 살 수 있고, 또 이것을 모으는 마니아들도 있는 등 사찰에서 불교문화를 적용해 상품을 개발할 수 있겠다고 생각해왔다"고 전했다.

스님은 4년 전 SNS인 인스타그램에 안라쿠지 공식 계정을 만들면서 본당에 판매기를 설치할 마음을 먹었다고 밝혔다.

먼저 지역의 젊은이들에게 '사찰에서 판매되면 재미있을 장난감' 이라는 주제로 아이디어를 모집했다. 먼저 그 첫 번째 시도로 지역의 목공 장인들이 만드는 목제 곡옥과 12신장을 응용한 상품이었다. 12신장 마스크는 사찰을 참배한 한 순례자가 아이디어를 낸 것이다. 유부 스님은 판매기의 반응이 긍정적인 반응을 얻으면서 주기적으로 상품을 추가하고 교체할 계획이다. 현재도 SNS를 통해 판매홍보와 함께 새로운 아이디어를 받고 있으며, 사찰을 찾는 순례자들에게도 제안을 받고 있다.

안라쿠지의 캡슐 장난감이 입소문을 타면서, 안라쿠지를 찾는 참배객들도 늘고 있다. 한 참배객은 "불교를 모티브로 한 캡슐 장난감을 수집하고 있기에 일부러 안라쿠지를 찾았다"고 말했다. SNS상에서도 더 많은 상품을 추가해 달라는 목소리가 높다.

유부 스님은 "모든 분들이 사찰을 좀 더 가깝게 느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미얀마 무장단체, 국민통합정부와 동맹

독재정권에 저항, 민간인 보호 등 협력 약속



사진출처=AFP

미얀마 소수민족 무장단체(EAO) 친민족전선(CNF)이 반(反)군부진영 임시정부 '국민통합정부(NUG)'와 동맹을 맺었다고 6월 1일 현지 매체들이 보도했다. EAO 중 NUG와 동맹을 맺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이와라디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CNF는 5월 29일 NUG와 협정을 맺고 독재정권에 저항키로 결의했다. 두 단체는 연방 민주주의 수립을 위해 평등과 상호존중, 상호인정을 토대로 협력하는 한편, 민간인 보호를 위해서도 협력하기로 합의했다는 설명이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이번 협정은 두와 라시 라 부통령, 만 윈 카잉 딴 총리 등 NUG 인사들과 푸 징 쿵 의장 등 CNF 관계자들 사이에 체결됐다.

CNF는 2015년 10월 미얀마 최초 민선정부인 떼인 세인(Thein Sein) 정부와 전국휴전협정(NCA)을 맺은 8개 EAO 중 하나다. NUG는 지난 4월 출범 이후 CNF 부의장을 임시정부 장관으로 임명했다.

현재 NCA를 체결한 다른 EAO들은 NUG와 군사정부간 대화를 위한 중재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해당 매체가 보도했다.

한편 NUG는 지난해 라카인 주 무슬림 소수민족 로힝야족에 대한 집단학살 행위를 막으라고 명령한 국제사법재판소의 지시에 따르겠다고 약속했다고 NUG대변인은 31일 밝혔다.

NUG대변인은 "NUG는 세계 최고 법원인 국제 사법 재판소와 협력함으로써 미얀마의 국제적 법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며 "우리는 미얀마의 모든 국민과 국가의 이익을 위해 법원 및 모든 관련 이해 관계자들과 계속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박정현 객원기자

베트남계 불자배우, 포브스 5인 선정

샹탈투이, '5월 아시아계 미국 및 태평양 섬 주민' 선정



5월 31일 불교 인터넷 매체 부디스트도어(buddhist door)에 따르면, 캐나다 태생의 여배우 샹탈투이〈사진〉가 '이달의 아시아계 미국 및 태평양 섬 주민' (the Asian American and Pacific Islander, AAPI)에 선정됐다. 미국에서 5월은 이른바 '아시아계 태평양 및 미국인 문화유산의 달'로, AAPI 들의 삶과 업적을 집중적으로 조명한다.

샹탈투이는 미국 전쟁 중 그녀의 부모가 베트남을 떠난 이후 몬트리올에서 성장해 왔다. 방송가에서 벌써 10년 이상의 경력을 쌓은 그녀는 12개 이상의 영화와 TV쇼에 출연했다. 최근 이례적으로 유색인종들 출연진으로 구성된 슈퍼히어로 TV 시리즈 '블랙 라이트닝'에서 그레이스 최 역을 맡으면서 유명해졌다.

그는 이번에 포브스 선정 '이달의 아시아계 미국 및 태평양 섬 주민'에 영화감동 레인 발데즈(Rain Valdez), 영화배우 마가릿 조(Margaret Cho), 사회운동가 어매진 로티(Amazin LêThi), 필리핀계 미국인 지나 로세로(Geena Rocero), 미 상원의원 세나토 타미 덕월스(Senator Tammy Duckworth)와 나란히 이름을 올렸다.

주목할 만한 점은 그녀가 캐나다의 다종교 가정에서 자라왔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 성인이되자 티베트 불교를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그녀의 불교 스승은 토론토에 있는 잼츠조 링 다르마 센터의 설립자이자 주지인 툴쿠 네탄 린포체(Tulku Neten Rinpoche)다.

투이는 부디스트도어와의 인터뷰에서 "불자인 아버지, 가톨릭 신자인 어머니와 함께 불교에 대해 논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멋진 일이다"라며 "나는 절과 성당을 번갈아 가는 가정에서 자랐다. 나는 두 종교에 모두 친숙하고 교리와 가치를 잘 알고있다"고 웃어 보였다.

이어 그는 "아버지와 나는 가끔 불교 서적을 공유하게 될 것"이라며 "아버지는 (나와 마찬가지로) 몇 년 전 린포체의 제자가 됐다. 나는 부모님과 함께 불교에 대해 멋진 토론을 나누며 그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고 있다"고 했다.

박정현 객원기자

사단법인 대한불교선재종



출가자와 종도를 모집합니다.
수행의 문턱에서 서로 위로하고 탁마를 함께 하실 도반의 인연이 없고,
어느 종단에 이 한 몸을 의지해야 할지 망설이는 분!
또는 발심출가 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시는 분!
출가는 했는데 은사와의 인연이 박복 하신 분!
도첩이나 호계첩이 없는 분!
여법한 각종의식 진행방법을 모르는 분! 등
승려로서 갖추어야 할 덕목을 저희 종단에서는
가족같이 교육하고 지도하여 정법 수행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 드리고 있으니 문을 두드려 주십시오.

총무원장 성곡 지운

사단법인 대한불교선재종

· 총본산 및 총무원 : 무등산 미륵사
· 부설기관 : 사찰음식전문점 수자타
· 주 소 : 광주광역시 동산길7번길 5-11
· 전 화 : 062)234-9834 팩스 062)223-9233
· 손 전 화 : 010-5479-5607 / 010-8623-3010

✻ 출가행자 및 종도모집 안내

기 간 : 상시
자 격 : 신체 건강한 남 · 여 내국인 (연령제한 없이 누구나 가능합니다)